

2018년 3월 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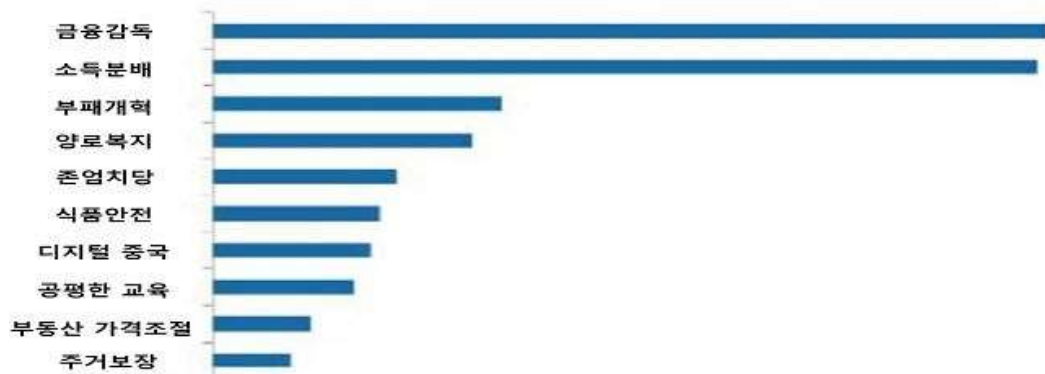
csf@kiep.go.kr

2018년 중국 양회(两会) 주요 이슈 전망



-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(两会)가 오는 3월 3일 전국인민협상회의,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(이하 전인대)를 시작으로 막을 올려 올해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운용 방향 제시
 - 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13기 전인대 대표 2,980명의 명단이 최종 공개되었으며, 그중 연임자는 769명으로 전체의 25.8%에 불과(나머지 70% 이상이 모두 교체)하며 여성(1.5%), 농민·노동자(2.28%), 기술자(0.15%)의 비중이 12기 대표 구성에 비해 증가
- 신화망(新华网)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의제로 △제조강국 △3대 과제(금융리스크 관리, 빈곤퇴치, 환경보호) △개혁개방 △농촌진흥을 제시했으며, 구체적으로 소득분배, 금융감독, 교육평등, 의료개혁, 부동산제도, 개혁개방 등을 언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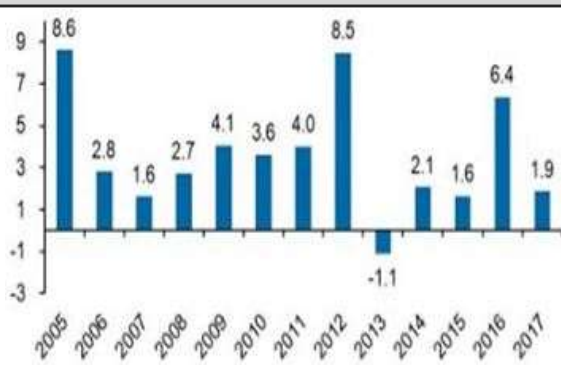
그림 1. 2018년 양회에 주목하고 있는 이슈 TOP 10



자료: 신화망의 설문조사 자료 인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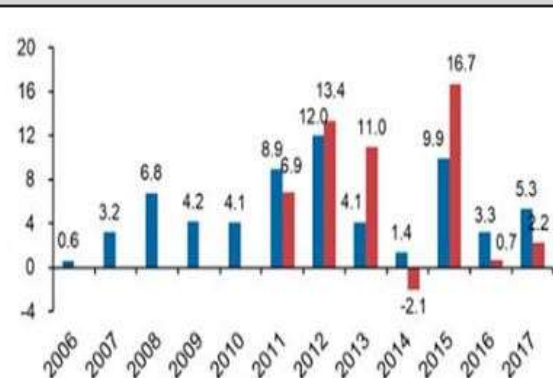
-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¹⁾, 창업판(차스닥) 지수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.
- 21세기 경제망(21世纪经济网)은 통상적으로 양회가 개막하는 시점에 증시에는 훈풍이 불며 양회에서 논의되는 정책과 제도 등에 따라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
- 아울러 유동성이 줄어들 위험도 존재하며 해외 시장에서 촉발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할 필요
- 특히 차스닥 지수는 2월 26일 3.61% 상승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상승세가 두드러짐.

그림 2. 매년 양회 시작 전 한 달의 종합증시상승폭



자료: wind, 광파증권연구소 자료 인용

그림 3. 매년 양회 시작 전 한 달의 중소판, 창업판 상승폭



출처: wind, 광파증권연구소 자료 인용

- (개현) 이례적으로 전인대 개막 전에 개최된(2월 26~28일) 중국 공산당 19기 3중전회에서 국가 지도부 인선안과 당-국가기관 개혁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사안들이 전인대에서 확정될 예정
- 3중전회 공보(公报)에는 2중전회에서 제안된 후 최대 관심사였던 국가주식 임기제한 삭제 개헌안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신 시진핑 주석의 통치철학인 시진핑 사상이 집중적으로 조명
- 단, 2연임(10년)으로 제한된 국가주식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안이 이미 2중전회에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전인대에 상정될 전망
 - 임기제한 규정 삭제 개헌안을 신화통신이 영문으로 보도한 후 중국 국내의 비판이 강해지자,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첫 보도했던 신화통신을 증정계
- 구체적인 지도부 인선 내용과 조직 개편안이 공보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, 왕치산(王岐山)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부주석 복귀, 류허(刘鹤)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의 부총리 승진, 양제츠(杨洁篪) 국무위원 및 왕이(王毅) 외교부장의 승진 등이 유력
- 또한 모든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사정·감찰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과 은행, 증권, 보험 감독기관의 통합 등이 결정된 것으로 보임.

1) 선전증권거래소 내 상장회사 중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의 개별주가를 가중평균하여 지수화 한 것.

- (질적 발전) 공급측 개혁 심화 및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.3~6.5% 수준으로 낮추고, 생산성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강조할 전망
 - 광파(广发)증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, 레버리지 해소(去杠杆)를 위해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출자전환 등이 필요하며 유효공급 확대(补短板) 위해서는 5G 기술 발전과 같은 선진 제조업 기술 축진이 요구됨.
 -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(国资委)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자산부채비율은 66.3%로 레버리지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출자구조 개편과 기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
- (국방)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에 따라 군제 개혁과 첨단무기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, 이번 양회에서 공개될 국방 예산의 증액폭에 대한 관심 고조
 -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까지 10% 이상, 2016년과 2017년 모두 7.6%
- (금융리스크 예방)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 방침을 정하고 금융감독체제를 강화할 전망
 - 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 폭을 확대하고 외국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으로, 2017년 12월 외국기업이 중국 내 이익금을 중국의 348개 투자자 장려 업종에 재투자할 경우 원천징수세를 면제할 것을 발표
 - 부채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융 통합감독기관 신설 및 감독체제 강화 예상
 - 중국 금융신문망(中国金融新闻网)은 향후 '녹색금융', '인터넷 금융', '비트코인'이 중국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
- (개혁개방)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전면적인 개방을 강조
 - 류허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일대일로 건설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금융업무의 대외 개방이 중요하다고 밝힘.
 -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해외에 전파시키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촉진시켜 '개방형 경제발전 체제'를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함.
- (농촌진흥) 지난 해 19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'농촌진흥전략'에 따라 농촌 빈곤 해결을 비롯하여,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체제를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전망
 - 광파증권연구소에서는 농촌 진흥 발전을 위해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토지경영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

그림 4. 유통 토지 면적과 가정 보급 토지 면적의 비율



자료: 土流网的 자료 인용

- (사회보장) 고령화 심화로 인한 양로보험 수요 증가에 대한 방안,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 및 환경오염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됨.
- 2017년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누적액은 7조 6,000억 위안에 달했으며 병원 치료의 어려움과 비용문제가 해결 과제임.
 - 2018년 전면적인 ‘양표제(两票制)’²⁾ 시행으로 의료서비스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의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.
 - 2017년 푸젠성을 시작으로 안후이성, 산시성, 쓰촨성 등 11개의 지역에서, 약 200여 개의 공립의료원이 양표제(两票制)를 시범실시하고 있음.

참고문헌

「2018年全国两会将分别于3月5日和3日召开」,『人民日报』, 2018-02-24.

<http://gold.cnfol.com/caijing/yaowen/20171107/25585846.shtml>

「2018两会前夕：专家为“健康中国”建言」,『网易』, 2018-02-26.

<http://news.163.com/18/0226/16/DBJ8562400018AOR.html>

「“两会”时间或催化创投蓝筹 市场押注风格转换拐点」,『网易』, 2018-02-27.

<http://money.163.com/18/0227/05/DBKL9GP9002580S6.html>

「A股主题投资迎“两会”风口 机构提示把握左侧机会」,『中证网』, 2018-02-27.

http://www.cs.com.cn/gppd/201802/t20180227_5721704.html

「2018年全国两会前瞻 公众最关注这些热点」,『三秦网』, 2018-02-27.

<http://news.china.com/internationalgd/10000166/20171107/31638768.html>

「2018年全国两会前瞻 公众最关注这些热点！」,『中国搜索』, 2018-02-27.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593515233166404617&wfr=spider&for=pc>

(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)

2) 제약회사-유통회사-의료기관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한 번씩 총 두 번 발행되어 양표제(两票制)라고 함.